

한 학생이 사지선다형 시험 문제 25개 중에서 20개는 확실히 알았기에 맞는 답을 골랐다. 그러나 나머지 5문제는 모르는 것이기에 솔직하게 모른다는 것을 표시했다. 즉 4개의 답(가) 중에서 아무 것도 고르지 않고 시험지를 제출한 것이다. 집에 돌아온 학생에게 그의 부모는 시험을 잘 보았냐고 물었다. 그 학생은 25문제 중에서 20문제는 아는 것이기에 답을 골라 표시했고 5문제는 모르는 것이기에 답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그 학생의 부모는 긴 한숨을 내쉬고는 "야 이놈아 그렇게 바보 같은 것을 누구한테서 배웠니? 선생님께서 그렇게 모르는 것은 표시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든? 넷 중에 맞는 답이 하나 있다는 것을 너도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넷 중에서 대충 비슷한 것을 찾아서 표시를 해야지, 어찌 그냥 놓아두고 왔나. 속이 터진다 속이 터져. 너같이 융통성 없는 애가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겠어 정말로 걱정이 태산이다. 앞으로 모르는 문제라도 제발 찍어라 알겠니?" 하면서 아이를 나무랐다.

그 학생은 부모로부터 크게 꾸지람을 듣고 어리둥절했다. 분명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바쁜 생활 시간이나 유희시간에 늘 선생님으로부터 귀가 풀리지게 들은 것은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 "정직이아말로 최선의 정책



불자 세상보기

최 종 식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정답’ 만 채점하는 세상

이다'라는 말이 아니었던가.

그 학생은 답안선생님에게 자신이 한 일을 설명했다. 답안선생님은 그 학생의 설명이 다 끝나자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겠는데, 네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려면 성적이 좋아야 한다는 것을 너도 잘 알잖나."

네가 비록 어떤 문제를 몰라서 정답을 표시할 자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넷 중에 하나는 정답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네가 아무렇게나 골라도, 정답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은 25퍼센트라는 대단히 높은 확률이야.

그런데 그걸 표시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철수야, 미안하지만 이와 같이 나왔으니 하나만 더 말해 줄게. 너희들이 답을 답안지에 표시한 것을 채점할 때 말이다. 구멍을 뚫어 정답표를 만들어 맞는 답을 세어 점수를 먹이지 않나. 너도 보아서 알지? 그러면 선생님 나는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답안지를 채점하면서 전혀 알 수가 없어.

나는 그저 까맣게 칠해진 것만 세어서 점수를 계산하는 거야. 마치 퀴즈놀이를 하고 있는 기분

이야. 학생 하나하나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으며, 무엇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학생과 교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전무한 거야. 나도 네가 그런 말을 하나까 이런 사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구나."

위 이야기는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정적을 강조하면서도 실은 요행과 부정직함을 가르치고 있는 모순에 대한 반증이다. 즉 수능능력시험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부정행위를 했다고 그 학생들을 잡아 가두고 벌을 주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미 사지선다형 문제 속에는 요행과 부정직이 도사리고 있다.

이제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을 하고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는 사람을 키우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이 대입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일어난 휴대전화용 이용한 수능시험 부정사건은 오로지 '승자의 정'의 라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케닝과 같은 불법과 반칙을 조장하고 묵인해온 세태의 모습이 어린 학생들에게 까지 파급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목적달성된 그것이 곧 정의로 간주되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에서 한없이 절망할 뿐이다. 과연 우리는 수험생들에게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정치에 불법을 증시적으로 삼겠다는 여야 불자 국회의원 39명이 11월 24일 정각회를 출범시켰다. 유례없는 불화의 시대에 참모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1981년 11대 국회에서 창립된 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던 국회 정각회가 1998년 여야의 불화로 사실상 활동을 중단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6년만의 세 출범이 새삼스럽다. 오늘의 극심한 사회적 분열의 중심에는 국회가 있다. 정치인들은 입으로 상생을 말하면서 한번도 상생을 위한 노력을 보여준 적이 없다. 정각회의 출범이 이 같은 상황의 올바른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사회적 분열, 불화와 독선을 치유하는 데는 불법이 특효약이다.

불교 교단인 승가 그 자체가 '화합하는 무리'라는 뜻으로 부처님은 교단유지의 첫째 조건으로 이 화합을 강조하셨다. 어디 그것이 승단본질까. 사부대중은 물론 사회, 나아가 국가,

화합으로 正覺의 수레를...

세계가 모두 '화합하는 무리'가 돼야 이 땅에 참다운 불국토를 세울 수 있다는 가르침일 것이다.

더 나아가 "사상의 입파(位破)나 같음과 다름, 있음과 없음 등등이 모두 평등하여 중도의 원리 안에 하나로 아우르게 한다"는 원효스님의 화평(和靜)사상은 오늘의 정치인들이 깊이 숙지해야 할 큰 가르침이 아닐 수 없다.

좋은 정치란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일이다. 지금 한국인들의 마음은 불편하고 불안하다. 정치인들이 부처님의 가장 기본적인 최초의 가르침인 팔정도를 알고 실천한다면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불편할리 없다.

정각회 회원들이 출산하여 이를 실천하고 그 실천의 폭을 넓혀가 주기를 바란다. "당파적 이해를 떠나 의정활동을 펴고 교계현안과 불자들의 여망을 정치에 충실히 반영하겠으며 불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바른 법을 구현하여 상생의 정치를 펴겠다"는 정각회 회원들의 다짐은 그런 의미에서 현실 인식에 바탕하고 있다고 믿고 싶다.

아울러 불교계 많은 현인들의 해결을 도와 한국불교가 세계적 위상을 확립해 나가는데도 정각회가 힘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김정재(칼럼니스트)

이렇게 들었다

상생과 응답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일부러 죽여서는 안 된다. 보살은 마땅히 자비심과 효순심을 일으켜 변치 않아서 방편으로 생명 있는 것들을 구호해야 한다. (법망경)

얼마 전, 살아있는 반달곰의 가슴을 잘라 호수로 옮겨주는 채취·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배에 고무호수를 대롱대롱 매단 채 2명 낚시 한 우리에 갇혀 울부짖는 곰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잔혹한 수법도 수법이지만, 살아있는 생명을 이토록 함부로 대할 수 있다니... 그 이기심과 잔인함에 분노하다가도 끝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번 사건이 비단 몇몇 사람이 자행하는 악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한 이기주의와 생명경시 풍조의 파생물이었기 때문이다.

곰에게 호수를 꽂아 옮겨주는 채취하는 사람에게 육을 퍼부으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곰을 도살해 옮겨주는 먹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나라, 세계 60국 중 유일하게 상어 지느러미를 때려낼 목적으로 상어를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합의서에 서명을 거부한 나라.

나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다른 생명을 앗는 일을 서슴치 않고, 환경보호라는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도덕보다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는 상어 지느러미를 선택하는 우리에게 '상생(相生)'은 대체 무슨 의미란 말인가. 힘의 논리로 남을 해하고 남은 이득까지 잘 사는 게 상생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다.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이제 막 마음을 튼 작은 새끼가 됐든 그 속에서 생명이 태동하고 그 과정을 통해 세상이 이뤄진다.

"인간의 평등은 모든 만물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유독 생각나는 요즘이다.

■김은경(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포교사단 대만 연수를 다녀와서

조계종 포교사단이 주관해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열린 '포교사단 대만 해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대만연수 목적은 세계적으로 활발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대만불교의 다양한 포교전략을 배워서 우리 실정에 맞는 포교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의도에서 진행됐으며, 불광산사를 비롯해 금강명사 복산사 자항사 정사정사의 자체공덕회를 방문했다.

불광산사는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로써 불법을 전파하고, 자선으로 사회복지를 이루고, 수행으로 인심을 정화 한다는 목표를 갖고 운영되고 있었다.

어린이 대안에서 죽음을 이르는 노인까지 의지처가 되고 있는 불광산사는 불자들에게 현상에 만날 수 있는 불국토였다.

스님과 신도들이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밝고 환한 미소를 통하여 처음 방문하는 우리들도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경내에 이루어져 있는 커다란 불사의 흔적들을 볼 수 있었다. 과연 그들이 이렇게 이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을까?

깊이있는 홍보물의 발간과 출판사업이 있다. 종파 구별 없이 불교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불교를 쉽고 친근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불교는 중생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곳 불광산사는 이룬불교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불교였다.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능력에 맞게 사람을 잘 활용하고 있었다. 사찰의 자금운영은 지속적인 출판사업과 불교용품 제작판매, 신도회의 후원금으로 보충했다.

신도회 조직은 지역별로 구성하고 임원을 많이 선정하여 다단계형식으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점이 다른것인지 궁금했다.

인재양성·투명한 재정공개 배울만

이곳은 사부대중이 평등하고 스님들은 계율에 의한 청정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명백하고 투명하게 재가자들과 함께 하고 있어서 신도들은 스님을 믿고 의지하며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화면에 있는 정사정사는 스님들의 수행처이며 신도와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다. 이곳은 비구니 스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도량으로 노동을 수행으로 삼아 직접 청정재 농작물을 재배하고, 양조공장을 돌려서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스님들 스스로 자급자족하여 경제적 자립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존경스러웠다.

재가자들이 스님을 존경하는 모습은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다. 겉으로 보아서는 위엄있는 스님들의 모습이 아니라 중생의 삶 속에 뛰어들어 동고동락하는 모습에서 신도들은 더욱 스님을 존경하고 가르침에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닐까?

대만방문을 통하여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한국불교는 변화해야 한다.

우리 불자들은 모두 초발심으로 돌아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스님들은 각자 능력에 맞는 전

문수행인이 되어야겠으며, 청정한 계율을 잘 지키고, 언행이 일치하는 스님이 됐으면 한다. 개인 재산이 많은 스님들은 불교발전을 위하여 회향하길 바라며, 각 사찰의 재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었으면 한다. 또한 재가자들도 스님들의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언행을 조심하고, 분별심을 버리고 사찰의 스님을 믿고 의지하여 함께 불국토 건설에 동참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조계종단에서는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부대중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앞으로의 한국불교는 밝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에는 소리없이 실천하고 있는 보살행자들이 넘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남숙(조계종포교사·신수회장)

'연대' 민명 심민섭



제2회 침구교육사 자격 취득 교육생 모집

◆ 교육목적 및 과정 ◆
평소 침구학에 관심이 많은 의료계종사자 및 재야 침구인들은 그동안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년간 제도운영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교육원을 개설할 수조차 없는 실정을 감안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국내 최초로 평생교육진흥원을 개설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유능한 교육생을 배출함은 물론 침구교육사 양성제도를 확충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침구교육사 과정

모집분야	모집인원	지원 자격	수업시간
6개월과정 (2학기)	50명	자격기본법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자로서 1. 해당분야 3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침구분야 종사자 2. 해당분야 국내의 사회교육원 및 교육학원에서 2년이상 교육이수자 3. 기타 위사항에 준하는 전문성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야 침구인	매주 1회 토요일 오전 9시~ 오후 6시
1년과정 (4학기)	50명	상기와 같이 결격사유가 없는자로서 1.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케어복지사, 일반인 및 건강분야에 자격이 있는자 2. 기타 건강관리에 관심있는 일반성인 3. 대체의학분야 종사자	오전 9시~ 오후 6시

2. 교육과정
• 한(중)의학기초이론, 해부생리학 • 침술내과학, 외과학, 위생법, 경혈학, 한방진단학, 침구처방학
• 대체의학관련과목 다수 • 사상의학(체질의학), 교육학개론 • 실기교육
3. 접수문의 • 02)393-5111(대) 서울 서대문 본교육원 교무처
4. 신청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 사진(3×4) 5매 • 이력서 • 각종자격증사본 • 주민등록등본

◆ 특 전 : 교육이수후 자격검정 합격자는 평생교육진흥원을 개원할 수 있음
• 국내최초로 평생교육진흥원을 개설할 수 있는 제도로 교육을 실시하오니 재야 침술에 전문인은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원을 졸업후 중구연변대학교 중의학(한의학)과에 편입학 가능 • 본 과정을 졸업후 외국대학(대체의학 및 한의학)편입학 가능
• 본 과정을 이수한후 개원설립자는 특별혜택 부여

■오시는 교통편 ■ 지하철 - 5호선 서대문역 1번출구 나와 10미터 조흥빌딩 5층 ■ 버스 - 137번, 서대문 로터리 하차 총정로유체국 옆
문교부허가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우)120-01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조흥은행 5층
한국침구교육원 TEL. 02)393-5111(대) FAX .02)312-5404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 시술 대상**
-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